

이어지는 네 편의 글은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파레이스와 안데르손은 대회 첫날인 7월 7일 “전체 세션 I. 가시화된 기본소득”에서, 키핑은 마지막 날인 9일 “전체 세션 VI.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정치”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이항우의 글은 둘째 날인 8일 “개별 세션 17 인지지본주의와 기본소득”에서 발표되었다.

## 기본소득은 왜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적실성이 있는가?

/ 필립 판 파레이스, 번역 안효상

기본소득이라는 접근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민주주의 전통의 일부는 아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전후 합의는 전 국민적인 보험에 대한 것이었지 기본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사회를 규제하는 이러한 기본소득인가 아니면 매우 실제적인 사회 갈등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 야니스 바루파키스, 『이코노미스트』, 2016년 3월 31일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유행이다. 핀란드에서 스위스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까지 사람들이 전례 없이 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짧은 기간이고 한 번에 한 나라에 제한되긴 했지만 이전에 기본소득이 실제적인 공적 토론의 대상이 된 적이 두 번 있다. 두 경우 모두 중도좌파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첫 번째 논쟁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있었다. 웨이커 교도이자 엔지니어인 테니스 밀너가 애써서 1920년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보너스” 제안이 토론되게 되었다. 이 제안은 거부되었지만 당의 저명인사들이 이후 “사회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지켜냈다. 이들 가운데 옥스퍼드의 경제학자이자 정치 이론가인 조지 콜과 나중에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되는 제임스 미드가 있었다.

두 번째 논쟁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있었다. 나중에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될 제임스 토빈은 “데모그란트demogrant”의 도입을 하버드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와 함께 주장했는데, 그도 민주당 좌파에 속했다. 이들에게 설득당한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공약에는 이 제안을 포함시켰지만, 1972년 대통령 선거 몇 달 전에 이를 뺐다. 이 선거에서 그는 리처드 닉슨에게 패배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훨씬 장기적이고 점차 세계적인 것이 된 논쟁은 1980년대 유럽에서 기원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몇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났으며, 이제는 모든 대륙에 각국 지부가 있는 네트워크인 BIEN의 창립을 촉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회민주당 좌파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사회민주당 좌파는 예를 들어 녹색당 혹은 자유주의 우파와 극좌파의 일부보다 뒷전에 있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것이 기본소득에 있는가? 그들의 열정을 자극하는 어떤 것이 기본소득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무엇이 기본소득이고 무엇이 기본소득이 아닌가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현존하는 사회부조 계획은 세 가지 의미에서 무조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사전에 사회보장 기여금을 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건부가 아니며, 해당 나라의 시민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부가적인 의미에서 무조건적이다. 기본소득은 **개별적이다**. 즉 수급자의 가계 상황과 무관하다. 기본소득은 **보편적이다**. 즉 다른 원천에서 나오는 소득의 수준과 무관하다. 기본소득에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일하고 있거나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소득을 부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조리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 소득 심사가 없는 것은 부자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다. 실제로 부자에게는 기본소득이 필요 없는데, 이는 부자에게는 현행 개인소득세 체계처럼 비과세 혹은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가장 낮은 소득 구간이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소득자는 물론 자신의 기본소득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일부에 대해 자신의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 지니는 하나의 커다란 장점은 자산 심사가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가난

한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이며, 낙인 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이런 소득이 다른 소득과 결합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별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철회되는 그런 소득의 경우에는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소득에 대한 권리로 대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기본소득은 그런 것과 무관하다. 기본소득은 유연하고 지적인 형태의 일자리 나누기를 제공한다. 기본소득은 장시간 노동하는 사람이 더 쉽게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공백기를 가질 수 있게 한다. 기본소득은 실업자가 자유롭게 취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좀 더 쉽게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소득이 기본소득에 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제공하는 확고한 기반으로 인해 고용, 공백기, 가족을 위한 시간 사이를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는 공백기와 조기 퇴직의 가능성을 줄이고, 따라서 사람들은 생애 전체에 걸쳐 더 긴 시간 동안 일을 나누어 할 수 있게 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지불노동에 대한 접근이 이 노동이 제공하는 소득으로 환원되지 않는 이유가 문제다. 노동이라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 좀 더 관대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더 높은 세율과 더 편안한 비노동 옵션에도 불구하고 노동은 소득 이상의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것이라고 본다.

## 복지국가의 종말?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우리의 복지국가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것인가? 반대로 기본소득은 복지국가를 구원할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기본소득은 공공 교육 및 공공 의료의 대안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노동자들의 기여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소득연계 사회보험 혜택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각각의 가구 구성원이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할 때 이들에게 필요한 현금 수당 및 재원은 이에 따라 줄어들며, 수당은 개인화되고 단순화되며 이들이 처하게 되는 조건과 관련된 함정의 깊이는 줄어든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사회부조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기본소득은 개인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합리적인 수준이 특정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산 심사가 있는 보충적 복지까지 없애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기반이 마련된다면 함정은 축소되고 조건부 수당에 의존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며,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업무는 용이해질 것이다. 현존 복지국가 하에서 무조건적인 기반이 마련되면, 적절하게 조정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체계는 해체되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이 이러한 두 개의 현재 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보장 모델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전에 존재하는 체계에 깊게 관여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도전적이라고 느끼고 저항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16세기에 도시의

공적 부조가 교회가 독점하고 있는 자선사업에 도전했을 때 그러했고, 19세기 말에 국가가 조직한 연금 및 건강보험 체계가 빈민 구제 기관의 지위에 도전했을 때도 그러했다.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노동조직 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것이 현재 우리의 복지국가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보험 체계를 출범시키고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데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은 설득력이 없지 않다.

그러한 저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며 칭찬할 만한 일이다. 사회보험에 기초한 우리의 복지국가는 사회정의라는 점에서 과거와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냈고, 따라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우리 시대의 요구에 더 잘 반응하기 위해 교의를 긴급하게 갱신해야 할 필요성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무한정한 성장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다는 것이 근거를 잃어버린 시대인데,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전 세기에 여기에 의존했다. 그때는 풀타임으로 평생 일하는 임금노동이 소수자에게 유일하게 가능하고 바람직한 세기였으며, 좌파가 자유라는 주제를 우파가 독점하도록 놔두지 않을 수 있었던 세기였다.

### 제3의 모델

사회보장에 관해 보자면, 과거의 사회부조 모델, 즉 공적 자선 및 사회보험 모델, 즉 노동자 연대성 - 사회민주주의는 이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방어하는 데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 과 근본적으로 다른 제3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좌파는 맑스의 착취 이론 이후 좌익적 사고의 대부분에서 핵심에 있던 환상을 제거함으로써, 말하자면 “노동자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좌파는 우리의 실질소득의 대부분이 (현재의 자본가들의 금융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노동자들의 노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과거에서 물려받은 자본축적, 기술혁신, 제도적 개선 등과 점차 결합한 자연의 선물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주의”의 관점에서 이러한 선물에 대해 도덕적으로 권한이 있는 - 직접적으로 임금의 형태이건 간접적으로 자신의 노동을 통해 권리가 있는 수당의 형태이건 - 사람들은 현재 세대의 노동자들이며, 자신의 숙련기술, 노동시간, 협상력의 시장가치에 비례해서 권리가 있다. 진정으로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이러한 선물에 대해 권리가 있는 사람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며, 이는 잘 보호되어 있는 풀타임 고용에 참여하는 정도나 지불노동에 참여하는 정도와 무관하다.

이렇게 좀 더 평등주의적이고, 좀 더 해방적이며, 덜 남성 편향적인 관점에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찬성할 만한 강력한 전제가 수반된다. 이는 좌파가 두려워할 어떤 것이 아니다. 이는 좌파가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것이다. 그렇게 될 만한 징후가 있는가? 하나가 있다. 앤디 스텐Andy Stern은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의 하나로 200만 가까운 조합원이 있는 국제서비스노

동조합(SEIU)의 위원장이었다. 그가 새로 낸 책의 제목이 그 징후를 말해 준다. 『기반 높이기: 보편적 기본소득은 어떻게 우리의 경제를 갱신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재구성할 수 있는가?』(Raising the Floor: How a Universal Basic Income Can Renew Our Economy and Rebuild the American Dream, New York: Public Affairs, 2016). **“중고”**